

통합교과형 논술의 지도원리와 실제

최상민*

- I. 입시환경의 변화와 논술교육
- II. 논술 글쓰기 지도의 반성
- III. 논술 글쓰기 지도의 실제
 - 1. 논술 글쓰기 지도의 전제
 - 2. 수업모델
 - 3. 첨삭지도의 원리와 제안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논술 글쓰기 지도의 방법적인 시사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장의 변화와 함께 그 실태를 반성하였다. 그 결과 통합 논술에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고등학교 전과정의 교과서를 기본교재로 삼고, 나아가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며, 이것을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의 연계학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읽기훈련과 쓰기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가 반영된 2텍스트에 대한 읽기지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논술지도의 실제 사례를 예시하여 나름의 방법을 제

* 전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강사

안해 보았다. 여기서는 특히 실제 지도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차별화의 개념을 넘어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교육 과정의 차별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통합논술지도, 나선형 교육과정, 독서, 교육과정 차별화

I. 입시환경의 변화와 논술교육

‘논술지도의 원리와 실제’에 관한 논의는 자칫 자명한 지침들을 나열하는 데 그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일반적인 사항들을 충분히 드러내고 강조함으로써 향후 교육현장에서 논술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입시환경은 핵심적인 변화양상은 두 가지이다. 수능 등급제의 사실상 폐지와 수시전형의 확대가 그것이다. 전자는 수능시험에서 등급과 함께 원점수와 백분율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과 관련된다. 이른바 상위권대학의 정시모집에서 수능시험은 이제 최소학력을 검정하기 위한 장치로만 활용될 것이다. 또 수시전형의 확대로 인하여 논술비중이 이전의 입시에서보다 더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변화와 함께 논술교육부문에서는 속칭 ‘붕어빵제조식’ 논술교육의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006.11 치러진 서강대 200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3700장 중 2000장 가량이 결론이 같았으며, 대학 측은 이를 대부분 불합격처리했다고 발표했다.¹⁾ 이른바 학원논술²⁾시비이다.

1) 특별취재팀, 「서강대 올 수시논술 3700장 중 2000장 판박이」, 중앙일보, 2006.11.8.

2) 학원논술답안의 특징 ①도입부를 일상생활의 에피소드나 널리 알려진 속담으로 시작하라. 학원측, 채점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대학측, 그런 답안

2008년 이후 논술부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환경의 변화는 단연 ‘통합교과형 논술’의 활성화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³⁾ ①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②교과지식의 단순반복학습과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독서·토론을 통한 사고력 배양을 위해, ③이는 궁극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왜곡되어 있는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내용이 그것이다. 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의 반응은 상당한 우려와 당혹감이 교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 공교육의 장에선 개별교과 중심의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고, ‘교과통합’적 안목과 교수/학습 능력을 지닌 훈련된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중심의 학습을 통한 자기주도적 사고훈련이 미비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공교육의 ‘붕괴’(학생들을 사교육시장에 내모는 경우)나, 사교육 시장에서의 ‘중속’(학교현장에 학원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교과형 논술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로 인하여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아 갈 것이다. 첫째, 통합교과형의 논술은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논술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그것이 내신과 수능공부의 연장선상에서

지가 너무 많아 식상, ②전개부에서 지문의 주요문장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인들의 명언구를 인용해라. 학원측, 지적수준을 보여준다, 대학측, 다수의 학생이 동일한 구절을 인용, 심지어 주제별 인용리스트가 있어서 문맥에 맞지 않는 문장도 인용됨. ③중도적 입장에서 지식만 나열하라. 학원측, 자기주장이 뚜렷하면 관점에 따라 감점될 수 있다. 대학측, 자기 목소리 없어 신선하지 않다.

3) 서울대학교입학관리본부, 「2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문항 설명」, 2005.11.28을 참고할 것.

이뤄지도록 연계학습을 가능케 한다. 둘째, 일방적인 주입식교육과 기계적인 문제풀이식 반복 학습을 통한 입시교육으로부터의 탈피를 가능케 한다. 셋째, 교육현장의 교수/학습 방법이 자기주도적 학습과 토론위주의 수요자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넷째, 교과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공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가능하다. 다섯째,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가능케 한다.

그리하여 현장의 분위기는 제도 도입을 논의하던 초기의 우려에서 상당부분 벗어나 학생들에게 실효성 있는 논술교육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대 등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현장 교사들의 논술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제도권 안에서 포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선 교육청이나 단위학교 차원의 논술지도교사 연수, 워크숍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흐름은 현장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각 학교단위의 논술지도교사연구모임이 꾸려져 여러 교과영역의 교사들이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논술지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II. 논술 글쓰기 지도의 반성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논술은 학습자가 창의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다시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이다. 통합교과형 논술은 학습자가 단위교과학습을 통하여 습득한 지적능력의 전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교과단위를 통합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해 가는 학습자의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다만 통합교과형 논술은 학력검정의 용이함과 공

정성을 기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단독과제형 논술과 달리 문제가 여러 개로 나뉘어 제시된다.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1600자 정도의 분량으로 논술하라”는 식의 문항유형은 단독과제형 논술의 대표적 형태이다. 그러나 통합교과형 논술은 이와 달리 제시문을 준 다음 문항을 여러 개로 나누어 제시한다. ①정확한 읽기와 관련된 문항, ②제시문을 읽고, 짧은 논증문을 쓰는 문항, ③ 본격적인 긴 글의 논술문을 작성하는 문항⁴⁾ 등이 그것이다. 이런 식의 문항제시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의 중요한 특징⁵⁾을 이루는 것들이다. 이들 서로 다른 문항들은 모두 특정의 주제와 연관을 맺고 있다. 또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그 답변이 미비하다거나, 못(않)쓰는 경우에는 실점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대학당국의 ‘(문제해결)과정을 중시하는 논술을 내겠다’는 언급과 연계되어 있다. 대학당국의 “명제적 지식이나 서술적 지식에 대한 학습보다는 문제 해결 방식이나 절차적 지식에 대한 학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⁶⁾는 설명은 시사적이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 개념을 외우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 자체를 익히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또 통합교과형 논술은 읽기능력이 중시되는 시험이다. 실제로 서울대가 주관하고 EBS를 통해 펴낸 『사고와 논술』에 전재된 본격적인 문항들을 살펴보면, 앞부분은 대개 ‘비판적 읽기’와 관련된 것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논술에 필요한 능력을 크

-
- 4) 서울대 모의논술 고사 문제 중 한 문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논제로 이루어져 있다.
 <논제1> 위의 세 제시문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시오.
 <논제2> 각 제시문의 핵심적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시오.
 <논제3> 위의 논의를 토대로 정보화 시대의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구상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술하시오.
- 5) 황영진, 「논술,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된다」, 전국국어교사모임, 2006 발췌 및 재구성하여 인용.
- 6) 서울대학교입학관리본부, 앞의 글 참고.

게 ‘비판적 읽기, 창의적 문제해결력, 논리적 서술 능력’⁷⁾이라고 하여 논술 능력에서 비판적 읽기 능력이 중요한 평가요소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이들 문항에서는 제시문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통하여 제시문의 전제와 함의 같은 것들을 명백히 인식한 후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아가 이런 분석이 없이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통합교과형 논술은 영역간의 전이성이 강조되는 시험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는 영역 전이성이 무엇이나, 그리고 그런 능력을 어떻게 기르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말로 답변한다. “원리 이해가 중요하지만 단순한 원리 이해만으로는 지식의 활성화 값을 극대화시켜 주지 못한다. 활용 가능한 지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반성적 원리체화의 단계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즉 어떤 영역에서 습득한 지식을 다른 영역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⁸⁾는 것이다. 말하자면 영역 전이적 지식이란 국어 교과에서 얻은 지식을 수학교과에 적용하거나, 수학의 공식을 국어 문법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식이다. 또 이런 능력은 능동적이며 반성적인 체화, 즉 여러 영역에 걸친 유사 응용 문제풀이를 반성적 사고 속에서 반복 수행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지식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유추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뤄진 논술시험문항을 정답의 용인성과 관련하여 나눠보면 다음⁹⁾과 같이 양식화할 수 있다.

7) EBS, 『사고와 논술』교사용, 2006, p.11.

8) 위의 책, p.19.

9) 김평원 외, 『아우라 과학논술』, 해나무, 2006, p.18 참고.

<표 1> 논술의 유형

	단순 지식형	응답 제한 서술형	에세이형
특징	일반 고교교육과정의 특정되고 심화된 교과지식을 묻음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묻음	교과의 벽을 넘어 인문철학과 같은 큰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음
정답의 용인성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음	수험생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정답이 가능하나 출제자의 의도가 반영된 일정한 범위 안으로 제한됨	정답의 개념이 모호함. 수험생의 사고의 깊이에 따라 다양한 답안이 가능
우수 답안	문제가 요구하는 교과지식을 정확하게 언급한 답안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논거가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답안	비판적 사고력에 기반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답안

논술시험이“제시된 주제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¹⁰⁾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것을 측정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이상의 표를 통하여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응답제한형을 중심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교과지식형이 섞이는 형태를 취할 것이란 점이다. 물론 2009년 이후부터는 점차 객관적인 채점 기준과 출제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란 전제하에 에세이형이 문제의 전형으로 자리 잡아 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통합교과형 논술의 시행과 함께 논술공부의 방식은, 이제 개별 교과목으로 나눠 교과내용을 심화 학습했던 기존의 학습방법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교과지식의 핵심 개념에 대한 배경지식을 천천히 곱씹어야 하며, 주변 일상 환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단순한 (문예미학적인) 표현적 글쓰기의 원리가 아닌 논리적 글쓰기 방법이 구안되어야 한다.

10) 박용수 외, 「보도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5.8.30.

관련교과지식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글쓰기나 말하기처럼 대학수학능력으로서의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최근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거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의 글쓰기교육이 강화되는 추세가 어떤 현실적인 필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논술교육도 미래의 지식기반 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장의 학생들(주로 비교적 실력을 갖췄다고 평가되는 특목고나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왜냐하면 이들이 현실적으로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이다.)에게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몰라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써진다.”는 말이 있다.¹¹⁾ 그 동안 논술교육은 대개의 경우, 일단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논술의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고 연습문항을 워크북 형태로 제시한 다음, 예시답안과 배경지식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교수/학습의 중심점이 논술답안 작성의 원리와 방법인 ‘방법적 지식’의 전달에 맞춰졌던 셈이다. 그러나 방법적 지식의 인지 여부와 실제 글쓰기 능력은 별개의 차원이다.

<표 2> 논술답안 작성의 원리 이해와 실제 글쓰기 능력의 관계

유형	논술작성의 원리이해	실제 글쓰기 능력	비고
A	논술문 답안 작성의 원리를 안다.	논술문 작성능력이 뛰어나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
B		논술문 작성능력이 떨어진다	논술교육이 가장 필요한 경우
C	논술문 답안 작성의 원리를 모른다.	논술문 작성능력이 뛰어나다	논술교육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D		논술문 작성능력이 떨어진다	논술교육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11) 김평원 외, 앞의 책, p.33.

대개의 경우 기존의 논술교육에서는 강의 대상을 위 표¹²⁾의 D 유형으로 정형화하고 있다. D 유형은 논술문 쓰기와 관련된 방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실제로 쓰는 능력도 부족한 경우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육적 처방도 방대한 양의 배경지식과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데에 맞춰진다. 그러나 현장에서 아이들의 고민은 대개 B 유형의 학생들의 것이다. D 유형은 대개 논술(을 치르는 대학 진학)에 관심이 없으며, A·C 유형은 이미 글쓰기 능력이 높기 때문에 첨삭지도를 제공하는 모의고사 유형의 학습(이는 대개 주어진 문제에 대해 논술을 작성하고 관련 교사를 통하여 피드백형식의 지도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을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B 유형은 특히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의 고민은 대개 일반적인 글쓰기 방법론으로 통합교과적인 논술문 쓰기를 시도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논술문 답안작성의 원리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논술문쓰기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일반적인 글쓰기 원리에 대한 피상적인 차원의 이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논술문쓰기(특히 통합교과형 논술문쓰기)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논술문 쓰기는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이 결합된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논술고사는 제시문 독해로부터 시작된다. 현장의 논술문항은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설명하거나, 내용을 참조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라는 형식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제시문의 핵심은 곧 논술문의 답안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좋은 논술문 쓰기를 위해서 읽기훈련과 쓰기훈련이 병행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12) 위의 책, p.33.

읽기

- ▶ 다양한 관점의 글로부터 하나의 단일한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
- ▶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교·분석하는 연습
- ▶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독해 훈련

쓰기

- ▶ 독창적이면서도 타당한 근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연습
- ▶ 추상적인 개념을 실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로 설명하는 연습

“논술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 논술”이라는 생각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제시문에 나타난 문제의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논술문답안 작성의 첫걸음이다.

확실히 읽기능력은 상당한 정도 개인의 배경지식과 함께 추론적인 사고능력에 크게 좌우되는 것 같다. 한 번쯤은 관련된 교양서적을 통하여(든, 아니면 기출문항의 풀이과정을 통하여든) 습득된 배경지식을 통하여 다뤄 본 경험이 있는 주제가 출제된다면 답안을 작성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통합형의 논술에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고등학교 전과정의 교과서를 기본 교재로 삼고, 나아가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며, 이것을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의 연계학습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그 많은 텍스트를 읽고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실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은 내신, 수능, 논술 등의 관문을 모두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적독(摘讀)·발취독(拔萃讀)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나, 『장자(莊子)』와 같은 1

차 텍스트, 혹은 베스트셀러 같은 글을 읽히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 2차 텍스트를 고르고 선택하는 과정의 엄정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가 바로 이 일을 해야 한다. 양질 여부를 따질 수 있는 2차 텍스트는 원전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고등학생 수준에서 쉽게 읽힐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있다. 이런 텍스트라야 동일한 교육내용을 계속적으로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심화시켜 확대함으로써 완전학습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III. 논술 글쓰기 지도의 실제

1. 논술 글쓰기 지도의 전제

논술 글쓰기 지도와 관련하여 종종 간과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논술문쓰기와 관련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나 관심사가 제각각이라는 사실이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논술문 쓰기 능력이 극히 부진하거나, 논술공부에 대한 흥미와 성취동기가 매우 낮기도 하다. 반대로 논술문 쓰기 능력이 우수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지대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은 교수-학습 방법을 탐색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많은 경우, 수준별 교육과정이 인성 및 창의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지적 능력 또는 학업 성취 수준에 근거한 교육과정 차별화의 개념을 넘어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차별화 개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¹³⁾고 말

13) 김제춘, 『교육개혁과 수준별 교육과정』, 한국교육개발원, 1997, pp.23~24.

한다.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과정의 개별화 실현에 있다. 따라서 수준별 반 편성 또는 이동 수업 그 자체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의 개별화’를 이뤄갈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은 서로 다른 능력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수업을 실시하는 데 따른 교육적 부적합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실효적인 논술지도를 위해서는 종래의 교사 중심의 획일적인 강의 중심의 교육 방법을 지양하고, 학습자의 개인차를 존중하며 주체적인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학습자의 창의적이며 능동적인 학습 참여가 논술문쓰기의 핵심적인 지도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집단 협력 학습(collaborative writing)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학습으로 교수-학습 방법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지식의 습득이나 축적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만들어내고 형성해 내는 과정을 익히는 것이 더 필요한 때문이다.¹⁴⁾

이와 함께 논술 글쓰기 지도에서 최우선적으로 강조점을 두어야 할 지점은 바로 논제 분석하기의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이다. 논술은 기본적으로 논제 및 논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시험이다. 이는 곧 논술 글쓰기가 논제와 제시문 속에 이미 ‘무엇을 쓸 것인가’에 관한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제로 논제에 언급된 단어 하나하나, 제시문 하나하나는 모두 각각의 명확한 존재 이유를 갖는다. 이를 잘 파악하여, 논제의 요구사항 하나하나에 대응하고 동시에 모든 제시문을 충분히 활용하여 글을 작성하다 보면, 작성된 논술

14) 정희모, 『글쓰기 교육과 협력학습』, 삼인, 2006, p.176.

문의 분량이 놀랍게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분량과 얼추 맞아떨어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 점은 다분히 철학적인 논제 하나를 던져주는 방식으로 치러지는 프랑스 바깥로레아와 우리의 논술시험이 다른 결정적인 지점이기도 하다.¹⁵⁾

바깥로레아 논술의 경우, 논제는 다만 학생들이 서술해야 할 큰 주제만을 던져줄 뿐, 그 주제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방식으로 서술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학생에게 달려있다. 이런 형식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자신의 독창적 견해를 마음껏 펼칠 수 있지만, 채점에 있어서는 채점자의 주관성이

15) [바깥로레아 논술문제의 예]

- * 궁극적인 진리(최종적으로 완전한 진리)란 있을 수 있는가?
- * 국가는 개인의 적인가?
- * 대중매체와 현대사회에 대해 논하시오.

[한국 논술문제의 예]

1. 조건제시형 논제.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를 논하시오.
 - ※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논술문에 포함시킬 것
 - 1. <제시문1>에 드러나 있는 사물의 인식 방법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제시문2>의 내용을 논할 것.
 - 2. 다음 문장들을 논술에 활용하되, 그 가운데 한 문장을 반드시 인용할 것.
 - ① 큰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큰 깨달음이 없다. 의심나는 것을 쌓아 놓고 모호하게 두는 것은 깨문고 따지는 것만 못하다. (홍대용, 담헌집) 외 5문장 (공자, 니체, 괴테, 로크 등) (2005년 서울대 정시)
2. 단계별 서술형 논제.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현안이 있다. 이런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는 대의명분과 실리적인 측면에서 그 손익을 면밀히 잘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에 주어진 네 개의 제시문은 명분과 실리의 측면에서 한국군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된 다양한 찬반 논의를 보여주고 있다.
 1. 각각의 제시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명분과 실리, 찬성과 반대의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
 2. 한국군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각 제시문에 포함된 찬반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또는 지지 주장을 포함할 것.) (2005년 수시1 한국외대)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많이 다르다.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2~5개에 이르는 제시문(여기엔 종종 그림이나 도표 등도 포함된다.)을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이는 글쓰기에 있어서 출제자의 의도나 채점자가 보고 싶어 하는 글쓰기의 전개방향이나 관점을 끊임없이 의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는 글 내용 속에 논제와 논지를 확실히 이해했다는 ‘흔적’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물론 이 문제는 논제와 제시문에 이미 학생이 ‘쓸 내용’과 ‘전개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며, 때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관점’까지도 감추어져 있다는 하나의 예로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논술문제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덧붙일 필요가 없는 말이긴 하지만, 논제와 논지를 충분히 파악한 뒤에 반드시 남들과 다른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2. 수업모델

적절한 논술수업모델을 설정하기 앞서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교과수업은 개별교과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통합교과적인 논술수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합교과목으로서 논술과목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므로 부득이 논술수업을 위한 특별반이 꾸려지고 이를 복수의 교과담당교사들이 협력적으로 수업을 이끌 필요가 있다.

둘째, 서로 다른 영역의 교과담당교사들이 논술수업을 위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전에 충분한 상호협의를 통하여 수업 내용이나 진행요령,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협

력수업모델이 개발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논술수업을 위한 한 방법적 모델이다.

- 수업으로의 초대(10분) - 학습자의 마음을 열고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단계
 - 인사나누기
 - 지난 시간의 회상,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한 안내

- 교사활동- 강의 (20분)
 - 과학교사의 주도로 제시문 분석 및 해설
 - 관련교과내용 가져오기 : 교과관련 핵심개념 설명하기
 - 몇 가지 개념어 익히기 : 준비된 내용 발표, 설명 내용의 보충

- 학생활동- 협력학습1 (15분)
 - 내용 생성하기 및 개요작성하기
 - 과학교사와 국어교사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학생활동 관찰

- 학생활동- 쓰기1 (20분)
 - 작성된 개요에 따라 최초의 논술문 작성하기

- 학생활동- 협력학습2 (15분)
 - 1차 완성된 학생글을 학생 서로 간에 돌려 읽기.
 - 기본개념에 대한 상대의 이해 수준에 대해 해석하고 도움 주기
 - 과학교사와 국어교사는 학생이 출제의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혹은 제시문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를 점검하고 관찰

cf. 수업참여교사는 학습자들 상호간의 협력수업을 하기에 앞서 대표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국어교사는 학생들의 논리전개방식과 구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과학교사는 교과지식의 잘못된 이해 내용을 짚어주어야 한다.

□ 학생활동- 쓰기 혹은 말하기2 (20분)

- 협력학습을 통해 깨닫게 된 내용을 자기반성적 소감문으로 작성하거나 말하기이다. 이 때, 학생은 개요를 구상하고 글을 써가는 동안 자기 머릿속 생각의 흐름들을 말하게 되고, 교사는 이 과정에서의 잘못된 개념이해(과학교사)나 흐름(국어교사)들을 짚어주어야 한다.

- 자신의 글쓰기 전략에 대한 방법적 탐구

cf. 이 과정은 소감문작성 및 발표 대신, 다시쓰기로 대체될 수 있다. 또한 필자의 경험으로는 다수의 학습자가 한 교실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한 지도가 하나의 방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토론 및 정리- 문항내용 재정리, 질의응답(10분)

예시문항(2008학년도 서울대 논술예시문항)

<가>

요즘 어디를 가나 매운 맛을 내세운 음식점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그 매운 정도가 심하다고 입소문이 날수록 더 호황을 누리는 듯하다. 입에서 불이 날 정도로 매운 불닭이나 겨울철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인 떡볶이, 어묵 등도 눈물이 쫄 빠질 정도의 매운 맛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몇 십 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과자들도

통합교과형 논술의 지도원리와 실제

경쟁적으로 ‘매운 맛 버전’을 내놓았고, 유명 외국계 외식업체들도 고추장이나 김치를 첨가한 매운 맛 메뉴를 개발하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여러 언론매체의 건강관련 코너에서도 매운 음식에 대해 자주 소개하는 등 매운 맛을 내는 성분과 그 기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철수도 평소에 매운 음식을 아주 즐겨먹는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듯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철수의 아버지는 퇴근길에 ‘전국에서 가장 매운 떡볶이’를 파는 곳이라 쓰인 광고를 보고 철수 생각이 났다며 빗갈부터 예사롭지 않은 떡볶이를 사오셨다. 철수는 호기심에 떡볶이를 보자마자 얼른 먹어보았다. 그런데 정말 입안이 얼얼해지며 눈물을 맺히기 시작했다. 평소 매운 음식을 아주 잘 먹던 철수도 견디기 힘들어 물 한 컵을 단숨에 마셨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는 듯했다. 곁에서 지켜보시던 어머니께서 매운 맛을 없애는 데는 이게 더 나을 거라며 우유를 한 컵 주셨는데, 신기하게도 마시자마자 입안의 얼얼한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

1세기 무렵 아시아 및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서 지중해로 수입되는 물품의 반 이상은 향신료였고 그 대부분은 인도에서 들여온 후추였다. 향신료는 두 가지 이유로 요리에 사용되었다. 첫째는 음식의 부패를 막는 것이고 둘째는 향미(香味)를 더 좋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5세기 경에는 베네치아 상인들이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여 엄청난 이윤을 얻었다. 이에 다른 나라들도 후추를 구하기 위해 인도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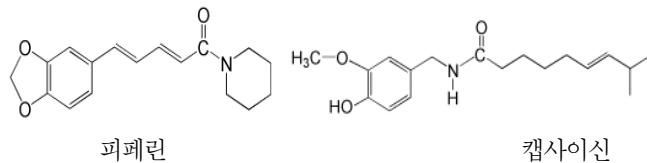
포르투갈 항해가 바르톨로뮤 디아스(Bartolomeu Dias)는 1487년에 희망봉을 돌았고, 그 뒤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는 디아스에 의해 개척된 항로를 따라 1498년 인도에 도착했다. 스페인도 향료 무역, 특히 후추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또한 제노바 사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는 서쪽으로 항해하면 인도의 동쪽 가장자리에 도달하는 더 짧은 항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1492년 스페인 국왕 페르난도(Fernando)와 여왕 이사벨(Isabel)을 설득해서

탐사 여행을 떠났다. 콜럼버스의 확신은 어느 정도는 맞았지만 전적으로 옳지는 않았다. 후추는 베네치아를 거대한 도시로 만들었고 대항해 시대를 주도했으며 콜럼버스가 신세계를 찾아 나서도록 했다. 후추에는 도대체 무슨 성분이 들어 있을까? 후추의 활성 성분은 피페린(piperine)이다.

콜럼버스는 두 번째 항해 때 서인도 제도의 아이티에서 매운 맛이 나는 새로운 향신료인 고추를 발견했다. 고추는 자신이 알고 있는 후추와는 전혀 다른 향신료였지만 콜럼버스는 개의치 않았다. 그 뒤 고추는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 동쪽으로 전파되어 아프리카를 빙 둘러 인도 너머까지 건너갔다. 그리고 50년 만에 전 세계로 퍼져 아프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요리와 빠르게 결합했다. 고추는 콜럼버스의 항해가 가져다 준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혜택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고추의 매운 맛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이다). 고추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매운맛은 캡사이신(capsaicin) 때문이다. 캡사이신의 구조식은 피페린과 유사 하다.

(페니 르 쿠터, 제이 버레스 『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 이야기』)

논제 1. 피페린과 캡사이신의 화학 구조는 아래와 같다. 골격의 탄소와 수소는 생략되어 있다. 예컨대 캡사이신 오른쪽 끝의 -는 -CH₃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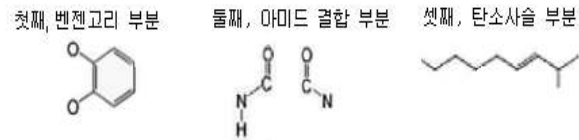
피페린과 캡사이신 같은 화합물은 생물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화합물은 언뜻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수소(H₂), 메탄(CH₄), 암모니아(NH₃), 물(H₂O), 이산화탄소(CO₂), 에틸렌(C₂H₄) 같은 간단한 분자에서 드러나는 원자들 사이의 결합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

문제 2. 후추나 고추가 들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피페린이나 캡사이신이 혀에 들어있는 단백질 수용체(receptor)에 의해 인식되어 그 신호가 두뇌로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이 시작된다. 흥미롭게도 피페린과 캡사이신은 같은 수용체와 결합한다. 이 두 가지보다 더 매운 맛을 내는 화합물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능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시오. (이 밖에도 문제3, 4가 더 있으나 생략)

□ 문제2에 대한 학생글 사례와 첨삭지도의 실제

⇒ 최초원고

매운 맛을 내는 성분이 수용체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가 크게 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 매운맛을 내는 화합물의 기본 골격은 피페린이나 캡사이신과 유사해야 한다. 문제 1에서 제시된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매운맛의 성분은 아래처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 볼 수 있다.



① 더 매운맛을 찾기 위해 위의 세 가지 구조를 조금씩 변형시키도록 하자.

첫째, 탄소사슬 부분은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쉽게 바꿀 수 있다. 탄소 사슬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수를 바꾸어 주거나, 탄소 사슬의 길이를 달리한다. 이를 통해 더 매운 맛을 내는 화합물을 찾아내도록 한다.

둘째, 아미드결합 부분의 변화이다. 이 아미드 결합 부분을 에테르 결합이나 에스테르 결합, 알코올 결합 등으로 바꿔가면서 매운 맛을 비교하여 더 매운 맛을 찾아낸다.

셋째, 벤젠고리의 변화이다. 벤젠고리의 육각형 혼성구조를 오각형이나 칠각형 등 다른 형태의 고리 모형으로 변화시키면서 실험한다. 벤젠고리에 부착되어 있는 작용기를 바꿔가면서 매운맛의 정도를 비

교한다.

위의 구조적 변화 외에도 매운 맛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무극성 용매에 녹여 매운맛을 용출시켜 본다.

⇒ 동료피드백

이 글의 장점은 대체로 과학적인 과정을 충실히 설명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몇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험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매운 맛을 내는 구조적 특징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하겠다. 무극성 용매에 의한 변화라든지, 나아가 수용체 환경을 달리했을 때의 반응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면 좋겠다. ①문장은 논제의 요구를 담아 표현을 달리 하는 것이 좋겠다. 첫단락은 논제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

⇒ 동료피드백에 대한 수정원고

① 더 매운맛을 찾기 위해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벤젠고리의 구조를 조금씩 변형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탄소사슬 부분은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쉽게 바꿀 수 있다. 탄소 사슬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수를 바꾸어 주면서 탄소 사슬의 길이를 달리한다. 탄소의 수를 조작변인으로 하고 매운맛의 정도를 비교하면서 더 매운 맛을 내는 화합물을 찾아내도록 한다.

둘째, 아미드결합 부분의 변화이다. 이 아미드 결합 부분을 에테르결합이나 에스테르결합, 알코올결합 등으로 바꿔가면서 매운 맛을 비교하여 더 매운 맛을 찾아낸다.

셋째, 벤젠고리의 변화이다. 벤젠고리의 육각형 혼성구조를 오각형이나 칠각형 등 다른 형태의 고리 모형으로 변화시키면서 실험한다. 벤젠고리에 부착되어 있는 작용기를 바꿔가면서 매운맛의 정도를 비교한다.

위의 구조적 변화 외에도 매운 맛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무극성 용매에 녹여 매운맛을 용출시켜 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 수정답안에 대한 교사의 첨삭지도

- 불필요한 내용을 대거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훨씬 간결해졌으며, 논제의 핵심적 요구에 근접하고 있다.
- 특히 ①문장은 출제자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모범적인 문장표현이 되겠다.
-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 역시 잘 되었다. 다만, 앞서 동료의 지적 사항 가운데 하나인 수용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반응양상에 대한 언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3. 첨삭지도의 원리와 제안

학생 스스로 직접 논술문을 이해하고 글로 표현하기 위해 나름의 글쓰기 전략을 마련하고 쓰는 과정에 대한 검토 및 평가는 학생의 논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이런 과정 전체를 통하여 송환(feedback)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논술 지도 과정에서 첨삭지도는 교사가 학생의 글을 읽고 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고 돕는 과정이 된다. 그러나 통합교과형 논술 문제의 경우 한 분야의 개별교과 담당교사가 다른 한 분야의 개별교과내용에 대해 체계적이며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거나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지도가 용이하지 않다. 복수의 교과담당 교사 간의 협력지도가 필요한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첨삭지도는 대면첨삭과, 지면첨삭의 방법으로 나뉜다.¹⁶⁾ 전자는 교사와 학생의 접촉면이 직접적이고 넓기 때문에 지도내용이 학생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후자는 전자와 달리 지도교사의 재량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도내용의 전달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첨삭지도 방법의 모색은 각각의 여건에 맞게 이뤄질 수 있다. 다만 그 지도방법의 구안에 있어서 기준을 설계하는 일은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

16) 강남식 외, 『논술지도요령』,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pp.111~112 참조할 것.

하여 반드시 필요하다.¹⁷⁾ 다음은 그 구체적인 사례이다.

- ▶ 평가자의 관심이나 주의를 끝만한 화제로부터 글이 시작되고 있는가?
- ▶ 제시된 화제와 논의된 내용은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 ▶ 논의된 내용은 논제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고 있는가?
- ▶ 정확하고 충분한 논거를 통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는가?
- ▶ 참신한 글거리들을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 ▶ 평가자의 주의를 점차적으로 집중되도록 논의 내용들을 배치하고 있는가?

앞서 4.2절에서 언급한 지도 사례를 예로 들면 과학교과와 국어교과 교사와 한 조를 이뤄 협력적인 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 때 교과내용의 세부 지식 사항의 이해와 적용에 대한 점검과 검토는 과학교과 교사의 몫으로 전체적인 논리전개의 흐름과 관련된 글 구성의 원리나 실제 부분, 수사적 사항에 대한 부분 등은 국어교과 교사의 몫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동료피드백’ 단계에서, 혹은 수정답안에 대한 협력 활동의 단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각 교과목 담당 교사들에 의한

17) 임철성은 논술첨삭의 문제를 다룬 논문에서 이에 관한 자세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먼저 퍼브스(Purves)의 ‘분석적 평가 범주’를 바탕으로 ‘글’수준에 대한 첨삭지도가 절실함을 강조한 후에 논술문제의 해결과정을 세 개의 층위로 나누고 다시 이 층위에 맞춰 다음과 같은 평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문제에 따라 제시된 글을 이해하였는가? 둘째, 핵심 내용이 제대로 드러났는가? 셋째, 표현 규칙을 잘 지켰는가? 임철성, 「통합논술 첨삭 지도 방법 고찰」, 『새국어교육』74호, 한국 국어교육 학회, 2006.12.30., pp.49~60 참조.

이중의 피드백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돕고 이끌어 가는 과정에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그들 스스로 자기 글쓰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교정해 가도록 이끄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것이 지면이든 대면이든 첨삭지도를 위한 피드백에 있어서 단계적이며 구체적인 지도 요령을 미리 설계하는 일은 중요하다.

첨삭지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이 논술문을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잘된 점을 먼저 칭찬해 주어서 지도 받는 학생이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친 지적은 오히려 논술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지적 받게 되면 다시 고쳐 쓰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가기준에 따라 꼭 지적해야만 할 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요한 것부터 언급하고, 지엽적인 것은 지도 받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분량을 선정하여 언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친근감이 갈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도받는 학생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학생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면 지도 내용을 읽는 학생이 훨씬 친근하게 논술에 접근할 수 있다.

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고 고쳐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 평가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게 된다. 한 첨삭지도 원고 안에서 평가의 관점에 따라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등의 일관성 없는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 첨삭자의 개성 있는 문체도 좋겠지만 첨삭지도 원고의 서술어를 어느 정도 틀을 두어 제한하는 문제도 고려해 볼만하다. 한편 어느 부분에 대한 지적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지도 받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 문단 및 문장,

어구, 단어 등에 적절한 기호나, 밑줄 등을 이용하여, 지도하고자 하는 글의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해야 한다. 첨삭지도에 사용하는 기호의 사용도 일정한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¹⁸⁾

학생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는 일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너무 어려운 어휘들을 사용하여 논술문 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실제로 첨삭 지도 내용이 논술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인지,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어려운 개념어들로 학생의 기를 죽이자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은 현학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가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다. 이런 식의 첨삭지도는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논술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거부감을 갖게 한다.

IV. 맺음말

논술은 써 본 사람이라야 잘 쓸 수 있다. 논술문 쓰기는 이론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한 영역이라는 뜻이다. 피아노 음계를 알고 악보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연습 없이도 연주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논술 글쓰기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논술 구성 형식을 안다고 해서 곧바로 글이 써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사적인 표현 방식을 안다고 해서 표현력이 발휘되는 것도 아니다. 문학작품을 쓰는 작가들도 쉽 없이 쓰는 자만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이는 논술 글쓰기에 관해서도 피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상에서 논술 글쓰기 지도의 방법적인 시사점을 찾기 위해 현장의 변화와 함께 그 실태를 반성하고 나름의 방법을 제안해 보았

18) 보기 : 문단→로마자, 문장→원문자 숫자, 맞춤법 오류 부분→밑줄 등

다. 이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내용의 세부 지식 사항의 이해와 적용에 대한 점검과 검토는 과학(관련)교과 교사의 몫으로 전체적인 논리전개의 흐름과 관련된 글 구성의 원리나 실제 부분, 수사적 사항에 대한 부분 등은 국어과(관련) 교사의 몫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서로 다른 영역의 교과담당교사들이 논술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 전에 충분한 상호협의를 통하여 수업내용이나 진행요령,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개별교과담당 교사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상당부분 상쇄시켜주거나 그 자체로서 교사훈련이 될 수 있다.

셋째, 협력수업모델의 적용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주로 돌려읽기와 같은 동료피드백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데 이과정에서 수업을 이끌고 관찰하는 교사의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훌륭한 교육적인 실천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상의 문제들을 통해 논술 글쓰기로 연결될 수 있는 화두를 스스로 마련하고, 그 화두를 풀기 위해 부단히 사고하며, 이를 화제로 남들과 토론에 나설 필요가 있다. 문제 요점을 적어 두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논술 수련을 위해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방법론일 뿐 더 나은 지도를 위해 개별상황에 맞는 지도방법이 계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강남식 외, 『논술지도요령』,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pp.111~112.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pp.182~193.
서울대학교입학관리본부, 「2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문항 설명」, 2005.11.28.
EBS, 『사고와 논술』 교사용, 2006, pp.11~27.

2. 단행본

- 김영채, 『사고력: 이론, 개발과 수업』, 서울: 교육과학사, 1998, p.9.
김재춘, 『교육개혁과 수준별 교육과정』, 한국교육개발원, 1997, pp.150~257.
김평원 외, 『아우라 과학논술』, 해나무, 2006, pp.18~33.
이삼형 외,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2001, pp.247~249.
장미옥, 『사고와 표현』, 세종출판사, 2002, pp.27~28.
정희모, 『글쓰기 교육과 협력학습』, 삼인, 2006, p.176.

3. 논문

- 박용수 외, 「보도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5.8.30.
임철성, 「통합논술 첨삭 지도 방법 고찰」, 『새국어교육』74호, 한국 국어교육 학회, 2006.12.30, pp.49~60.
최향임, 「국어교육에서의 비판적 사고 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2, pp.7~10.
특별취재팀, 「서강대 올 수시논술 3700장 중 2000장 판박이」, 중앙일보, 2006.11.8.
황영진, 「논술,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된다」, 전국국어교사모임, 2006.

The Teaching Method And Strategy of The Combined
Subject Discourse

Choi, Sang-Min

This writing is for the purpose of searching for the methodological implication of discourse writing instruction. For this, first of all, I reflecte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pot. As a result, the most efficient method of being ready for the combined discourse is taking a basic textbook as all courses of highschool textbook and reading various texts which are related with them, discussing it, I confirmed of requiring connection studying of the way in adapting this in the daily lives naturally. For this, I empathized that reading practice and writing practice must go side by side. Especially, I empathized that reading teaching needed for 2texts that was reflected a spiral pattern curriculum principle.

Next, I suggested the method in my own way, illustrating practical examples of discourse instruction. Here I empathized that the differentiation of curriculum needed to be made in substance, following students personality various characteristic over the differentiation of curriculum in the center of the real instruction examples

Key words : discourse writing instruction, reading, a spiral pattern curriculum,
differentiation of curriculum,

최상민

전남대학교발전연구원 강사

주소: 전남 순천시 석현동 향림현대아파트 101-100호 (우)540-758

전화번호: 011-634-0279

전자우편: csmin@naver.com

이 논문은	2008년 4월 28일	투고하여
	2008년 6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8년 6월 30일	간행함